

# 온실가스는 줄이고 농가매출은 올린다

### 전북자치도, 저탄소 농산물 생산지 국내 1위 면적 차지... 전국 1만8169ha 대비 27.5% 올해 3782ha 인증 신청 등... 연말까지 국내 최고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대대적인 인증 확대에 나섰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성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을 적용,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이다.

특히, 전 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예산을 확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탄소 인증 면적 확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올해 도내 농가들로부터

3,782ha를 신청받았고 이는 전년 1,222ha에서 309% 증가된 수치로 총면적 5,004ha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지를 보유하게 돼 전국 신청 면적 1만 8,169ha 대비 27.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올 연말까지 인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국 1위의 면적을 보유함으로써 전북자치도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저탄소 농산물 생산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또 본격적인 인증 면적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통시장에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역대 매출을 올

리는 농가가 매출액 주목받고 있다.

상추를 전문으로 재배하고 있는 김재시 우리뜰상추연구회 김화신(44) 대표는 2014년 귀농해 4천 평 규모의 시설하우스에 저탄소 인증 상추를 재배, 2023년 1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벼농사 대비 10.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화신 대표는 "현재 대전, 서울 도매시장과 동시제 농협, 민간농협에 납품하고 있으며,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상추로 인식돼 최상단 가격을 받아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향후 시설하우스 면적을 확대해 상추뿐만 아니라, 기타 업체류(쪽파 등)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시 대표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저탄소농산물을 선점해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 차원에서 농가의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 기자

# '에너지 관련 혁신 기업은 새만금으로'

### 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에너지입주기업 모집 최대 7년간 기술컨설팅·제품 상용화·산학연 네트워크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과 기관을 9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총 4개 입주공간 규모로, 에너지 관련 혁신 기업들에게 기술컨설팅, 제품 상용화, 산·학·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에너지 및 에너지 연관 산업 분야로, 지원자격은 연구개발업(M70)과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 서비스(M72)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며, 선정된 기업들은 센터의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새만금 2공구(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 관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면적 5층 규모의 건물이다. 연면적 5,844㎡에 이

르는 이 센터는 회의실, 세미나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 등을 위해 센터의 공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모집에서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7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새만금 2공구에 위치한 에너지 국가종합연구실 증단지,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등과의 접근성을 통해 기술개발, 시험·실증 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입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063-280-4729)로 문의하거나,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만희 기자

# 전북자치도, 2024년 을지연습 실시... 실전적 연습에 '중점'

### 22일까지 나흘간... 실제 전쟁상황 가정한 통합상황조치 연습·실제훈련 다양화 등 통해 비상 대비 태세 확립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4년 을지연습이 19일 실시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 을지연습이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업체 등이 참여한다. 올해로 56번째 개최되는 을지연습

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비상 대비 훈련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을지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 연습과 연계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실전적 훈련

을 강화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쓰레기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등 고도화하는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전시를 가정한 '과' 단위별 직제 편성 훈련, 실제 전쟁 상황과 유사한 통합적·복합적 상황 조치를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실시간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 2일차인 20일에는 무주양수발전소에서 도 대표훈련을 실시한다. 핵심 기반 시설의 실제 피해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경 통합 피해 복구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공격과 GPS 전파 교란 대응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을지연습의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를 전파하고, 차량 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모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방위 대피 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참가자가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 기자

# 전기차 화재 종합안전대책 마련 '총력'

### 도,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 구성

전북자치도는 전기차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 관련부서 합동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도 자체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분야별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관련 부서에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환경산림국 생활환경과 주관으로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소방본부 예방 안전과 및 119대응과, 미래첨단산업국 전환산업과 및 청정에너지수소과가 해당된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지하 충전 시설 지상 이전 지원, △공공주차 화

재 대응 매뉴얼 등 홍보 강화, △충전 시설 과충전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강화, △공공주차 화재 안전시설 등 설치 지원,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 등이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와 더불어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건의를 검토 중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정기회의를 운영해 정부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한 도의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 추진 시까지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만희 기자

# 도, 추석 대비 축산물 위생 유통 점검

전북자치도는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28일까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소 등 29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0여 명이 참여하며,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포장육과 햄세

트 등 축산물의 위생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50건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거감사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 여부 등이다. /이만희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일원	• 연장: 2.5km • 폭: 9.0m (확포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환산구 호자로 2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선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면도

- 계제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권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주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갈음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수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